

조선치마저고리에 깃든 녀사의 숭고한 네원을 새겨봅니다

지난 10월 26일로 동신문을 펼친 저는 신문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였습니다.

신문에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창립 60돐을 맞으며 대학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삼지연못가에 조선 치마저고리차림으로 서시여 환히 웃음 지으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의 존귀하신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 『혁명의 어머니』를 정중히 모신데 대하여 사진과 함께 실려있었습니다.

삼지연은 존경하는 녀사께서 지난 1939년 5월 대원들을 이끄시고 조국으로 진군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아름답게 피어난 조국의 진달래를 삼가 익히신 고장입니다.

항일전의 그 나날에 위대한 주석님을 모시고 군복차림으로 찾으셨던 삼지연못가에 소박한 조선치마저고리를 입고 서계시는 녀사의 모습은 저에게 오실 때에는 그들과 험울없이 어울릴수 있는 가장 소박한 조선옷차림을 그리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녀사께서 김일성주석님으로부터 지하공작임무를 받으시고 우리 배달민족에게 해방의 새봄을 안겨주시려 처음 도천리에 오셨을 때 입으신 것은 자주빛 저고리를 평생 세우며 외쳤습니다.

녀사께서 하많은 옷들중에 자주빛 저고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은 한생 태양의 위엄을 빛내기는 밝은 해발이 되시려는 굳은 각오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없이 인자하신 태양의 빛발로 악질지주가 산중초막에 내버린 열병에 걸린 머슴소녀를 세습없이 치마에 깨끗이 옷을 정성으로 다해 구원해주시였고 가난과 불행을 펼쳐놓았으며 여기며 불운한 처지를 한탄하던 네인들에게 백두산에 높이 솟아 빛나는 장군별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재생의 봄빛을 뿌려주신 김정숙녀사,

인민들을 아끼고 품어주시며 그들의 사랑하는 딸과 누이, 언니와 손녀가 되신 녀사의 자애로운 모습은 천총만충 사람들의 마음을 자석처럼 끌어당겼고 온 마을사람들은 그이를 『우리 우승이』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자신의 필생위업을 무엇보다도 김일성주석님을 결사옹위하는데 두신 김정숙녀사께서 군복을 입고 계실 때나 조선치마저고리차림으로 계실 때나 호위장군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조금도 흐트려지지 않으셨습니다.

김정숙녀사께서 도천리와 신파에서 지하공작을 하시던 그 나날에 김일성주석님의 령도밑에 국내진공작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조선인민혁명군 『소멸』 하겠다고 능우들이 대병으로 간삼봉에 밀려들 때 그에 대한 정보에 혁명군사령부에 보내여 김일성주석님의 안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신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녀사께서 김일성주석님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자신을 넘으시며 자신의 한 몸을 서슴없이 내대신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지만 저는 여기서 제가 들은 한 가지 사실만을 더 이야기하고 합니다.

해방직후 민주개혁을 위한 사업에 중국민족운인 연준홍색 대부분자를 입고 시집을 가야 하는 설음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땅의 꽃같은 수십만의 네인들이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가 정조를 무참히 유린당하고 일본순사들이 우리 네인들에게 일본의 최하층 신분을 나타내는 옷을 입지 않았다고 무리로 달려들어 가위로 치마저고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리던 그 참상을 어찌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 시절 중국에서 살던 저도 일생에 단 한번밖에 없는 결혼식날에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풍습대로 다홍치마, 초록 저고리와 철보단장을 곱게 차릴 대신에 중국민족운인 연준홍색 대부분자를 입고 시집을 가야 하는 설음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 중국땅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의 집 대문가에는 『망국노』라는 조소따지가 자주 나붙곤 하였는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결혼식날만이라도 주변사람들에게 이런 수모와 멸시를 받지 말라고 중국녀자처럼 변복을 시켜주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식민지망국노의 비참한 처지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일제의 민족 말살정책에 의해 세상에 영영 자기의 존재마저 잊을뻔 하였던 조선치마저고리가 우리 민족에게 새 삶의 봄빛으로 안겨오게 된 것은 김일성주석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모시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 소박한 치마저고리차림으로 우리 민족에게 오신 바로 그때 부터였다고 생각합니다.

돌이보면 회령천기슭의 인심좋은 작은 초가집에서 태여나신 녀사께서는 어머니가 손수 지어 입혀주신 치마저고리와 함께 인생의 첫걸음을 매품이 헤시였으나 수난당하는 조국은 그 거칠디 거친 작은 옷자락에 비애의 눈물만을 가득 새겨놓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에게 고운 색동옷 한번 입혀드려지 못하는 슬픔에 눈물짓던 부모님들은 이국땅에서 왜놈들의 퍼비린 칼날에 참혹하게 세상을 떠났고 혁명의 길에 나섰던 오빠, 동생마저 일찍이 희생되었습니다.

험악한 세상에 외롭게 남으신 녀사의 가슴속에 차오르던 꾀에 절고 눈물에 고삭았던 사연많은 몽당치마자락…

실로 망국민족의 설움과 한을 그 누구보다 빠에 사무치게 체험하신 녀사의 그 불멸의 모습을 눈앞에 그려보며 자문해봅니다.

수수천년 이어진 봉건적질과 차본의 억압속에서 지지리도 천대와 멸시

류미영

만을 당해온 조선녀성들의 비참한 모습이란듯 연약하고 가냘프지만 느껴지던 조선치마저고리가 그처럼 민족의 령수를 결사수호하는 굳건한 방파로, 응집한 성새의 모습으로 세상에 자가 모습을 드러낸적이 파연 있었는가고 말입니다.

참으로 김정숙녀사는 우리 민족이 대대로 사랑하며 물려내려오는 치마저고리에도 민족성원으로서의 값값은 사명감은 무엇보다 민족의 령수를 결사옹위하는 걸에서 빛난다는 진리를 새롭게 새겨주신 민족의 스승, 민족의 제일가는 귀감이십니다.

김정숙녀사께서 입으셨던 조선치마저고리, 그것은 녀사께서 한생토록 가슴속에 간직하시었던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현신적인 충성인 동시에 내 나라, 내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였습니다.

김정숙녀사에게 있어서 조선치마저고리는 단순한 옷이기 전에 김일성주석님의 거친체심을 밝고자 헌신해온 남녀사절들이 빠운 김정숙녀사의 모습은 언제나처럼 소박한 치마저고리차림이었습니다.

해방직후 남조선의 명망있는 정

객이었던 려운형선생이 평양에 와서 김일성주석님의 저택을 찾게 되었을 때 그는 수수한 무명치마저고리와 고무신 차림에 접입을 하시다가 겸손하게 자기를 맞아주시는 김정숙녀사를 선뜻 알아뵙지 못하고 그저 댁에 심부름을 드는녀성으로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후 근한달동안이나 주석님의 저택에 머물러있으면서 김정숙녀사의 극진한 환대를 받고 그이의 인품에 완전히 매혹된 려운형선생은 서울에 돌아

가가족친지들에게 자기는 평생에 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에서도 한다하는 너결들과 너성명사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백발백중의 명사격수로 이를멸진녀장군이신데다 정치적적경과 안목이 뛰어난 정치활동가이시지만 그처럼 현숙하고 상냥하고 소박하고 소탈하신분을 그 어디에서도 만나보기 어렵지 않다고, 김정숙녀사같으신분은 동서고금에 더는 없을것이라고 흠토와 경란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정숙녀사께서 해방후 조국인민들과 첫 인사를 나누실 때에도, 온 나라 방방곡곡의 수많은 노동자, 농민들 앞에서 김일성주석님의 새 조국건설로선을 하나하나 깨우쳐주실 때에도 밝은 웃음지으신 그이를 정결하게 밝쳐드린 것은 다른아닌 조선옷차림이었습니다.

그때는 해방바람, 봉건청산람이 꽂곳을 휩쓰는 속에 한다하는 너류인사들마다 자기의 존재를 류행을 본딴 형형색색의 옷차림에 담아 뽐내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좋은옷이나 류행복 몇벌쯤은 입으실수도 있었으련만 자신을 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평범한 전사의 한사람이라고 하시며 그런 화려한 옷차림파는 될수록 거리를 멀리하신 김정숙녀사였습니다.

민족이 낳은 희세의 너걸이 그리도 소박하고 너무도 친근하기에 인민들은 더욱 용모하고 한순간에 그이를 자자들로 소집하고 격의없는 친근한 이웃으로, 스스럼없는 벗으로, 가까운 혈육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조국해방의 벅찬 감동이 흐르던 그나날 김정숙여머님으로부터 받아안은 강렬한 인상에 대하여 쓴 글 한대독이 저의 가슴을 울립니다.

민족이 낳은 희세의 너걸이 그리도 소박하고 너무도 친근하기에 인민들은 더욱 용모하고 한순간에 그이를 자자들로 소집하고 격의없는 친근한 이웃으로, 스스럼없는 벗으로, 가까운 혈육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때는 해방바람, 봉건청산람이 꽂곳을 휩쓰는 속에 한다하는 너류인사들마다 자기의 존재를 류행을 본딴 형형색색의 옷차림에 담아 뽐내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좋은옷이나 류행복 몇벌쯤은 입으실수도 있었으련만 자신을 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평범한 전사의 한사람이라고 하시며 그런 화려한 옷차림파는 될수록 거리를 멀리하신 김정숙녀사였습니다.

김정숙여머님으로서는 해방후 조국인민들과 첫 인사를 나누실 때에도, 온 나라 방방곡곡의 수많은 노동자, 농민들 앞에서 김일성주석님의 새 조국건설로선을 하나하나 깨우쳐주실 때에도 밝은 웃음지으신 그이를 정결하게 밝쳐드린 것은 다른아닌 조선옷차림이었습니다.

그때는 해방바람, 봉건청산람이 꽂곳을 휩쓰는 속에 한다하는 너류인사들마다 자기의 존재를 류행을 본딴 형형색색의 옷차림에 담아 뽐내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좋은옷이나 류행복 몇벌쯤은 입으실수도 있었으련만 자신을 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평범한 전사의 한사람이라고 하시며 그런 화려한 옷차림파는 될수록 거리를 멀리하신 김정숙여머님으로서는 해방후 조국인민들과 첫 인사를 나누실 때에도, 온 나라 방방곡곡의 수많은 노동자, 농민들 앞에서 김일성주석님의 새 조국건설로선을 하나하나 깨우쳐주실 때에도 밝은 웃음지으신 그이를 정결하게 밝쳐드린 것은 다른아닌 조선옷차림이었습니다.

그때는 해방바람, 봉건청산람이 꽂곳을 휩쓰는 속에 한다하는 너류인사들마다 자기의 존재를 류행을 본딴 형형색색의 옷차림에 담아 뽐내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좋은옷이나 류행복 몇벌쯤은 입으실수도 있었으련만 자신을 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평범한 전사의 한사람이라고 하시며 그런 화려한 옷차림파는 될수록 거리를 멀리하신 김정숙여머님으로서는 해방후 조국인민들과 첫 인사를 나누실 때에도, 온 나라 방방곡곡의 수많은 노동자, 농민들 앞에서 김일성주석님의 새 조국건설로선을 하나하나 깨우쳐주실 때에도 밝은 웃음지으신 그이를 정결하게 밝쳐드린 것은 다른아닌 조선옷차림이었습니다.

그때는 해방바람, 봉건청산람이 꽂곳을 휩쓰는 속에 한다하는 너류인사들마다 자기의 존재를 류행을 본딴 형형색색의 옷차림에 담아 뽐내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좋은옷이나 류행복 몇벌쯤은 입으실수도 있었으련만 자신을 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평범한 전사의 한사람이라고 하시며 그런 화려한 옷차림파는 될수록 거리를 멀리하신 김정숙여머님으로서는 해방후 조국인민들과 첫 인사를 나누실 때에도, 온 나라 방방곡곡의 수많은 노동자, 농민들 앞에서 김일성주석님의 새 조국건설로선을 하나하나 깨우쳐주실 때에도 밝은 웃음지으신 그이를 정결하게 밝쳐드린 것은 다른아닌 조선옷차림이었습니다.

그때는 해방바람, 봉건청산람이 꽂곳을 휩쓰는 속에 한다하는 너류인사들마다 자기의 존재를 류행을 본딴 형형색색의 옷차림에 담아 뽐내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좋은옷이나 류행복 몇벌쯤은 입으실수도 있었으련만 자신을 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평범한 전사의 한사람이라고 하시며 그런 화려한 옷차림파는 될수록 거리를 멀리하신 김정숙여머님으로서는 해방후 조국인민들과 첫 인사를 나누실 때에도, 온 나라 방방곡곡의 수많은 노동자, 농민들 앞에서 김일성주석님의 새 조국건설로선을 하나하나 깨우쳐주실 때에도 밝은 웃음지으신 그이를 정결하게 밝쳐드린 것은 다른아닌 조선옷차림이었습니다.

그때는 해방바람, 봉건청산람이 꽂곳을 휩쓰는 속에 한다하는 너류인사들마다 자기의 존재를 류행을 본딴 형형색색의 옷차림에 담아 뽐내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좋은옷이나 류행복 몇벌쯤은 입으실수도 있었으련만 자신을 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평범한 전사의 한사람이라고 하시며 그런 화려한 옷차림파는 될수록 거리를 멀리하신 김정숙여머님으로서는 해방후 조국인민들과 첫 인사를 나누실 때에도, 온 나라 방방곡곡의 수많은 노동자, 농민들 앞에서 김일성주석님의 새 조국건설로선을 하나하나 깨우쳐주실 때에도 밝은 웃음지으신 그이를 정결하게 밝쳐드린 것은 다른아닌 조선옷차림이었습니다.

그때는 해방바람, 봉건청산람이 꽂곳을 휩쓰는 속에 한다하는 너류인사들마다 자기의 존재를 류행을 본딴 형형색색의 옷차림에 담아 뽐내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좋은옷이나 류행복 몇벌쯤은 입으실수도 있었으련만 자신을 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평범한 전사의 한사람이라고 하시며 그런 화려한 옷차림파는 될수록 거리를 멀리하신 김정숙여머님으로서는 해방후 조국인민들과 첫 인사를 나누실 때에도, 온 나라 방방곡곡의 수많은 노동자, 농민들 앞에서 김일성주석님의 새 조국건설로선을 하나하나 깨우쳐주실 때에도 밝은 웃음지으신 그이를 정결하게 밝쳐드린 것은 다른아닌 조선옷차림이었습니다.

그때는 해방바람, 봉건청산람이 꽂곳을 휩쓰는 속에 한다하는 너류인사들마다 자기의 존재를 류행을 본딴 형형색색의 옷차림에 담아 뽐내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좋은옷이나 류행복 몇벌쯤은 입으실수도 있었으련만 자신을 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평범한 전사의 한사람이라고 하시며 그런 화려한 옷차림파는 될수록 거리를 멀리하신 김정숙여머님으로서는 해방후 조국인민들과 첫 인사를 나누실 때에도, 온 나라 방방곡곡의 수많은 노동자, 농민들 앞에서 김일성주석님의 새 조국건설로선을 하나하나 깨우쳐주실 때에도 밝은 웃음지으신 그이를 정결하게 밝쳐드린 것은 다른아닌 조선옷차림이었습니다.

그때는 해방바람, 봉건청산람이 꽂곳을 휩쓰는 속에 한다하는 너류인사들마다 자기의 존재를 류행을 본딴 형형색색의 옷차림에 담아 뽐내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좋은옷이나 류행복 몇벌쯤은 입으실수도 있었으련만 자신을 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평범한 전사의 한사람이라고 하시며 그런 화려한 옷차림파는 될수록 거리를 멀리하신 김정숙여머님으로서는 해방후 조국인민들과 첫 인사를 나누실 때에도, 온 나라 방방곡곡의 수많은 노동자, 농민들 앞에서 김일성주석님의 새 조국건설로선을 하나하나 깨우쳐주실 때에도 밝은 웃음지으신 그이를 정결하게 밝쳐드린 것은 다른아닌 조선옷차림이었습니다.

그때는 해방바람, 봉건청산람이 꽂곳을 휩쓰는 속에 한다하는 너류인사들마다 자기의 존재를 류행을 본딴 형형색색의 옷차림에 담아 뽐내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좋은옷이나 류행복 몇벌쯤은 입으실수도 있었으련만 자신을 장군님의 뜻을 받드는 평범한 전사의 한사람이라고 하시며 그런 화려한 옷차림파는 될수록 거리를 멀리하신 김정숙여머님으로서는 해방후 조국인민들과 첫 인사를 나누실 때에도, 온 나라 방방곡곡의 수많은 노동자, 농민들 앞에서 김일성주석님의 새 조국건설로선을 하나하나 깨우쳐주실 때에도 밝은 웃음지으신 그이를 정결하게 밝쳐드린 것은 다른아닌 조선옷차림이었습니다.

그때는 해방바람, 봉건청산람이 꽂곳을 휩쓰는 속에 한다하는 너류인사들마다 자기의 존재를